

사 설

정보화실태조사에 거는 기대

정보 인프라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사 주관으로 4월 한 달간 진행되는 '불교 정보화 실태조사'는 불교계의 경쟁력 높은 정보화를 위한 큰 밑그림을 그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방송, 불교 TV, 본사 등이 함께 힘을 모으는, 그야말로 범종단 차원의 이번 조사는 전국 1만 2천여 사찰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단 최초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세계에 깔리고 있는 정보망은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로 접어들며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나, 그동안 불교계에서 과연 이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불교가 미래의 종교를 자임하려면 이 같은 정보화 사회의 도도한

흐름 속에 휩쓸리지 않고 함께 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 인프라 구축에 교단의 역량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조사는 이를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이라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띤다.

뿐만 아니라 국경 없는 네트워크의 세계에서는 정보 인프라의 양과 질이 곧바로 세계무대에서 감별되고 평가된다. 또한 우리 삶의 방식과 문화에 맞는 '한국형 정보화'의 창조라는 과제에서 불교는 당연한 한국문화의 정보화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

조사에서 나올 정확한 결과야말로 문제해결의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며 새로운 비전을 창출해 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교계의 성실한 동참과 협조를 필요로 한다. 전화설문, 우편 및 온라인 설문, 방문면접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이번 조사에 불교계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 드리고자 한다.

승가기초는 4부대중의 화합

"비유하자면 여러 부분이 모여 수레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 요소들의 인연이 화합하여 승생이라는 가명이 있다." <잡아함경>에 나오는 말이다. 종단의 현실도 부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 출가 2부중과 재가 2부중이 결합하여 4부중이 되며, 종단의 구성 요소가 된다. 그동안 출가와 재가가 역량을 결집하여 21세기 문명의 초석을 다져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한다. 종단의 기초는 신도들이다. 신도라는 기초가 튼튼하면 할수록 종단이라는 집을 잘 지을 수 있다. 그동안 종단과 신도단체들은 원활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서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원사회의 종교 환경은 우리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마침내 종단 차원에서 신도단체의 발전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승님은 각 수행단체장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제는 승속이 하나가 되어 신도운동의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 선언하며, 종단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신도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종단과 신도들은 별개의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대승무원장님의 선언에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종단의 백년대계와 불국정토건설은 재가와 출가의 화합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차체에 종단은 포교환경과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하며, 재가단체들은 종단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각 단체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담스님 생애·사상 재조명한다

도선사, 탄신 100주년 맞아 세미나·전집 간행등 기념사업

청담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재평가하고 조계종 역사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기념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청담문도회(회장 정천)와 도선사(주주) 해자는 올해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청담스님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를 비롯해, 청담스님 전집 및 논총 간행, 유품 및 유묵 전시를 위한 상설전시관 설치, 사진 모음집 출판, 산사 음악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 특히 이번 기념사업은 그동안 불

교 대화운동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온 데서 벗어나 청담스님의 선사상과 이념을 폭넓게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청담스님(1902~1971)은 두 차례씩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회의장을 역임하고, 66년에는 통합종단 제2대 종정을 지냈다. 또 47년 불암사 결사 및 54년 불교정화운동에 주도하는 등 근현대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오는 10월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학술세미나는 청담스

님의 수행과 정화운동, 한국불교 현대화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청담 대종사와 현대 한국불교의 전개'를 제목으로 한 논총은 제1부 '청담대종사의 불교사상' 제2부 '청담대종사와 불교 정화운동' 제3부 '청담대종사와 현대한국불교' 제4부 '청담 대종사의 생애와 예술'로 구성된다. 각 부마다 4~5편씩의 논문이 실린다.

모두 11권으로 구성되는 청담스님 전집은 <정화운동과 한국불교

> <평전> <생애와 사상> 등이 늦어도 올해 말까지 완간될 예정이며, 청담스님 사진 모음집도 10월경 발간된다.

이와 함께 도선사는 현재 소장하고 있는 청담스님의 유품, 글씨, 사진 등을 모아 경내 청운당에 상설전시관을 설치, 전시하며, 학술세미나가 끝난 2~3일 뒤 불교음악인과 연예인을 초청, 경내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해 청담스님의 뜻을 기린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a.com

문화재 관람료 대표소 옮겨라

양평군청, 신속불허

양평군청이 문화재관람료 대표소 옮길 것을 요구하며 용문사의 건물신축 신청을 불허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하면 전통사찰 신축허가의 경우 위배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해줄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용문사는 신속허가 불허를 편파행정이라고 판단,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군청에 요청할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강원교과목 개편 필요” 56%

교재 한글화 10명중 6명 찬성

조계종교육원, 학인 691명 대상조사

강원 학인 중 절반 이상이 강원 교과목이 개편돼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재의 한글화에 대해서도 10명중 6명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조계종 교육원이 지난 2000년 11월 22일, 사미니 470명 등 강원 학인 69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2일 발간된 <승가교육> 제4집에 분석내용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조사에 따르면 교과목 개편과 관련해 응답자의 388명(56.2%)이 '개편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1.7%(219명)가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1.4%(79명)이었다. '개편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이 바

람직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52명(50.9%)이 '불교일반과목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불교일반과 현대학문 보완'이라는 전체적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학인도 107명(15.5%)이나 됐다. 그러나 '전통과목 확대'를 주장한 학인도 105명(15.2)에 달했다. 이같은 결과에 기초한 전통과목을 인정하는 선에서 개편이 이뤄져야 함을 나타낸 것이다.

교재 한글화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394명(57%)이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힌 반면, '반대한다'는 견해도 279명(40%)으로 나타났다. 교재를 한글화 하더라도 한문교재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반영했다.

한명우 기자

13일 동화사 주지선거

대구 동화사 주지선거를 위한 산중총회가 13일 오후 1시 심검당에서 열렸다.

5일까지 동화사에 입후보자 등록서류를 제출한 스님은 현 주지 성덕스님과 지성스님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원우 기자



◀전수(여자승)가 입게 될 밤색 반두루마기.

진각종, 스승법복 바꾼다

임시총의회, 밤색양복서 노란색 개량한복으로

진각종 스승 법복이 새롭게 바뀐다. 진각종은 지난 3월21일 대구구청에서 열린 제329회 임시총의회를 열고 현재 정사님자 스승의 밤색 양복을 노란색 개량형 한복으로 교체키로 결의했다. 법복 교체는 전통미와 편리성을 살리는데 주목적이었다. 이번에 바뀌는 정사 법복은 상·하의 모두 노란색 개량형 한

복이며, 법복 위에 밤색의 운두루마기를 착용하게 된다. 전수(여자승)의 법복은 현재 착용하고 있는 밤색 상의(겨울), 흰색 상의(여름)에 밤색 치마를 그대로 유지하되, 밤색의 반두루마기를 착용하도록 했다. 총인의 법의는 황금미색으로, 법복은 흰색, 운두루마기는 정사·전수과 같은 밤색으로 결정했다. 한명우 기자

제22회 구족계 수계산림

15일~22일 직지사서

조계종 총무원은 15~21일 7일간 직지사 금강계단에서 제22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을 실시한다.

이번 수계산림에는 사미 165명, 식자마니(사미니계)를 수제한 지 2년이 지난 재 159명 등 모두 324명이 입재하며, 이들은 산림 첫날인 15일 4급 승가고시를 치른 후 7일간의 산림을 거쳐 21일 비구(니)계를 받게 된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한국불교 업그레이드...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신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과와 관련한 문의나 투고,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필 : 김병규
 인쇄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신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모연문

전주산 북장사는 신라 흥덕왕 3년인 833년에 진감국사 혜소스님께서 창건하신 1200여년 고찰입니다. 본래의 법당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썩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의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법당에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습니다. 숙종 2년에 모신 북장사 부처님은 경남·북 일원에서 제일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교상미국의 우진왕(優進王)이 부처님 형상과 똑같이 조성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높이 2m, 10cm의 영험하신 부처님 입니다. 저희 북장사에서는 아미타 삼존불의 개금불사를 발원하였습니다. 저희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에 전국의 신심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복덕구족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 조계종 **전주산 북장사**
 주지 효담 합장

문의 : ☎(054)533-5103 ■농협온라인계좌 743058-51-005335 북장사

교 통 편

◆고속버스 : 서울→상주
 *택시이용

◆기차편 : 김천→상주
 *택시이용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